

윤동환

교수

민법

단권화정리

시 간

2016. 5. 2(월) ~ 5. 19(금), 총28회, 월~금, 오전·오후

20회 판례이론 정리(단권화) + 8회 맥 사례특강

판례이론 강의날 오전 8시 40분~9시 10분까지 변시선택형 기출시험

맥 사례 강의날 오전 8시 40분~9시 40분까지 사례형 모의시험

오전강의 오전 9시 20분 ~ 12시 30분

오후강의 오후 1시 40분 ~ 5시 30분

※ 개강일 시험 없음 - 강의 8:40부터

교 재

- 로스쿨 민법의 맥(저자, 2016년 전면개정판)

수 강 특 전

- 과외식 관리형 강의 & 답안클리닉(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 제1화~제5화 민사법 선택형 기출해설집 무료제공(상법 황의영 공저)
- 7월 이후 진행될 친족상속법 특강 50%할인

**수강생
유의사항**

- 단권화 강의 前 학원 홈페이지 16년 3월 ‘윤동환 민법 기본강의’란에서 1회~2회(총6강)까지 민법 전반을 개관하는 무료강의를 듣고 오길 권합니다.
- 단권화 강의 前 또는 진행 중 개별상담을 통해 공부방법 및 연간공부계획 등을 점검받거나 민사법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010-3265-1151 강사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 전화상담 등이 불편이거나 어려우신 분은 강사메일 dhyoon21@hanmail.net로 하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력 및 저서
※ 윤동환 강사 약력 및 저서

서울대 졸업(법학사, 경제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민사법 전공

민사법전문 강의 15년

사법시험 2차 민법 90% 이상의 독보적인 점유율

성균관대·한양대·단국대·전남대·전북대 등 주요대학 특강 및 모의고사 문제 출제위원

주요저서 : • 주제별 논리(사례)구조 및 필수암기 자료집(월비스 刊)

- 객관식 민법사례의 맥(월비스 刊)
- 로스쿨 민법의 맥 및 민법사례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 민사법 핵심지문총정리(우리아카데미 刊)
- 민법, 민소법 종합사례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 민사법 변시 기출의 맥(황의영 공저, 우리아카데미 刊)
- 핵심 민사소송법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 민사소송법 지문총정리의 맥(근간, 우리아카데미 刊)

**강 의 방 향
및 계 획****1. 객관식(선택형)과 주관식(사례형)을 통합적으로 준비하자**

남은 8개월여를 객관식 따로 주관식 따로 준비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객관식 공부도 곧 주관식 대비도 될 수 있도록, 주관식 공부도 곧 객관식 대비도 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비록 맥 판례이론 단권화 강의, 맥 사례 단권화 강의를 별도로 진행하지만 결국은 선택형과 사례형이 동시에 대비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민법은 양을 늘리지 않고 민법의 '맥' 한 권으로 끝장낼 수 있게 단권화하는 것이 남은 8개월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로스쿨 민법의 맥으로 변호사 시험 민법(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끝내자

어찌 1500페이지 남짓 한 책으로 민법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로스쿨 민법의 맥 한 권이면 변호사시험 민법(선택형, 사례형)은 충분히 끝내고도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가.것.으로 소화시키고 정리하느냐의 것입니다. 혼자서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저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만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제가 개인별 상황에 맞게 변호사시험에 최적화된 단권화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독 사례형이 약해서 매일 1시간씩 답안작성을 하고 싶은 수험생이 있다면 제가 직접 답안클리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는 유독 선택형이 약해서 선택형 OX 문제집을 보충하고 싶은 수험생이 있다면 어떻게 맥 기본서와 유기적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단권화 방법 및 공부상황을 일일이 확인해 드릴 예정입니다.

3.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하게, 판례의 법리를 확실히 숙지할 수 있게

로스쿨 민법의 맥(기본서)을 중심으로 실체법적 리걸 마인드를 구축한 다음, 각 주제별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법상 쟁점은 무엇인지, 당해 판례에서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당해 판례가 어떻게 사례 구조화되는지(요건사실론 및 절차법적 쟁점과의 연결고리), 다른 제도(판례)와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등 민법 전반에 걸친 조직화, 체계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강 의 방 향
및 계 획****4. 개인별 상황에 맞는 과외식 관리형 강의**

수험생 자신이 알고 있는 몇 몇 특정 합격생의 공부방법을 따라간다고 그 공부방법이 자신에게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10년 이상 수만명들의 수험생들을 지켜 본 강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저는 제 수업이 해당 수험생에게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으라고 추천드릴 것입니다. 고시공부는 '시행착오'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그만 방향하시고 본인의 '열심'에 합당한 결과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그 동안의 변호사시험 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별 상황에 맞는 과외식 관리형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밀착형 관리

원하는 수험생에 한 해 다른 강사님 강의를 듣더라도 8개월간 꾸준히 공부방법론 상담, 스터디구성 등 밀착형 관리(직접 대면상담이 어려운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들은 메일, 카톡 등을 통한 관리)

(2) 전용스터디룸 운영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윤동환 강사의 밀착형 개인과외식 질의&응답, 답안클리닉 등 8개월간 지속적인 관리, 이를 위해 개인과외식 질의&응답을 위한 전용 스터디룸을 확보하였습니다.

(3) 연간 무료스터디 진행

참고로 작년에 진행된 '무료스터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주일에 한 번 민사법 답안 쓰고 답안클리닉 받기 스터디, ② 매일 공부량 카톡 출석체크 및 공부량 보고하기 스터디(무료), ③ 민사법 객관식 조문 OX 및 주관식 필수암기 요건, 효과, 중요판례 키워드 쓰기 스터디(무료)

**출제경향 및
공부방법론**

별도 첨부자료 참고

교재의 특징
I. 민법의 맥의 전반적인 특징

- ① 1580여 페이지의 적절한 분량으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동시대비용
- ② 학설, 이론적인 논의를 대폭 삭제하고 판례 및 실무적 쟁점 등 대폭 강화
깊이 있게 보아야 할 쟁점과 간략히 보아도 될 쟁점 사이의 강약조절
깊이 있는 사고를 위해 300여편의 논문 및 판례평석의 내용을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소개
- ③ 연수원 교재인 요건사실론, 민사재판실무 등을 변호사시험에 맞게 재구성
- ④ 각 쟁점별 절차적 쟁점을 간략히 소개함으로 절차법과의 유기적인 이해 도모

II. 민법의 맥의 사례부분(민사소송법 종합사례 포함) 특징
1. 철저히 변호사 시험에 맞춘 문제와 해설

- ① 변호사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춰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주장, 항변, 재항변을 질문과 해설 구조 속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고, ② 사례문제는 각 주제별 대표적인 판례를 기초로 만들되 민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중요판례들과 유기적으로 문제를 구성하였으며, 해설내용은 수험적합성에 맞게 최대한 압축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2. 철저히 논리적인 문제와 해설

- ① 기본사례에서는 각 주제별 리딩판례를 사례문제를 통해 숙지하게 하고, 각 사례별로 “주제별 논리(사례)구조”(주장 및 항변구조 ; 요건사실론)를 소개하여 주제별 사례구조의 틀을 익히게 하였습니다. ② 종합사례에서는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민사소송법 쟁점과 함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민법 핵심판례들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장문의 문제를 구성하되, 해설내용은 최대한 답안분량에 맞게 압축적으로 서술하였으며 i) 사례변형 연습, ii) 수험생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논점 해설, iii) 채점평 또는 교수강평란을 별도로 소개하여 변호사시험 민법사례(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에 대해 완벽히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교재의 특징

※ 2016년판 로스쿨 민법의 맥(전면개정판) 특징

- ① 작년 하반기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제1118조 전체 조문 중 1056개가 정비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소식에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맥 전면개정판’의 모양새가 갖추어 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까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본 강사는 로스쿨 학기 개강에 맞추어 개정판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차후 개정된 조문이 국회를 통과하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이번 전면개정판의 경우 변사 5회 기출 및 15년 법전협 모의기출까지 반영하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과 관련한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까지 Non-Stop으로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양은 작년판 기준 총 7page가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본서를 처음부터 일일이 읽어내려가면서 문장을 다듬고 표현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각주에서 중요하지 않은 ‘판례평석’이나, 역대 사법시험 1차 기출문제 등을 다시 확인한 후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각주 ‘관련판례’는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 ③ 2016년 전면개정판의 경우 각 주제별 쟁점구조(사례구조)를 대폭 보강하고, 판례연구를 총 20여개 신설하였으며, 기본사례 및 종합사례를 전면적으로 손질하여 보완,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신경향에 맞는 연수원사례 등을 포함한 총 20여개 사례를 새롭게 소개하였습니다.
- ④ 2016년 전면개정판의 경우 각 주제별 방주 번호를 붙여 로스쿨 민법의 맥을 기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맥 사례집, OX집, 암기장 등 다른 ‘맥시리즈’로 공부할 때 논리 및 표현의 일관성을 가지고 맥 기본서와 함께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⑤ 2016년 전면개정판의 경우 2016년 1월 6일자 개정민법을 반영하고,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증관련 개정민법과 여행계약에 대한 신설조문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신설조문문제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총론 말미에 추심금, 전부금 청구와 관련한 판례 및 민사집행법 관련한 설명을 별도로 하였습니다. 判例는 2016년 1월 초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 별책부록

1. ‘실전답안 형식’의 1회~5회 변호사시험 기출 및 최근 사법시험 2차 기출
2. 사항색인, 판례색인 포함

**맥 판례이론
및 사례부분
집 중 강 의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분 야	분야	시험
1,2	5/2(월)	민법총칙	판례이론 정리(단권화)	30분 변시 선택형 기출
3,4	5/3(화)	민법총칙	판례이론 정리(단권화)	30분 변시 선택형 기출
5,6	5/4(수)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이론 정리(단권화)	30분 변시 선택형 기출
7,8	5/5(목)	민법총칙	민법총칙 중심 맥 사례 (연수원 사례 포함)	1시간 사례형 모의시험
9,10	5/6(금)	물권법	판례이론 정리(단권화)	30분 변시 선택형 기출
11,12	5/9(월)	물권법	판례이론 정리(단권화)	30분 변시 선택형 기출
13,14	5/10(화)	물권법	물권법 중심 맥 사례 (연수원 사례 포함)	1시간 사례형 모의시험
15,16	5/11(수)	채권총론	판례이론 정리(단권화)	30분 변시 선택형 기출
17,18	5/12(목)	채권총론	판례이론 정리(단권화)	30분 변시 선택형 기출
19,20	5/13(금)	채권총론 채권각론	판례이론 정리(단권화)	30분 변시 선택형 기출
21,22	5/16(월)	채권총론	채권총론 중심 맥 사례 (연수원 사례 포함)	1시간 사례형 모의시험
23,24	5/17(화)	채권각론	판례이론 정리(단권화)	30분 변시 선택형 기출
25,26	5/18(수)	채권각론	판례이론 정리(단권화)	30분 변시 선택형 기출
27,28	5/19(목)	채권각론	채권각론 중심 맥 사례 (연수원 사례 포함)	1시간 사례형 모의시험

민법은 해당 주제와 다른 주제와의 상관성 및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연결시키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총과 물권부분을 설명할 때 채총 및 채각 그리고 친상법의 쟁점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설명됩니다.

⦿ 민법 및 민사소송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기출분석

[I] 선택형 문제 분석 및 전략

1. 민법 선택형 총평

(1) 제5회 총평

예년과 문제구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문제 난이도는 4회보다는 약간 상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판례의 경우 단순히 판결요지를 물어보는 형태가 아니라 복합 사례 형태로 출제되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해 판례법리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급하게 결론만 외우고 있거나 기출만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기출된 판례법리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즉, 제5회 변호사시험 민법문제의 경우 상당수 내용이 변시 기출판례들이었으나 복합사례 형태로 변형해서 출제되었고 무엇보다 까다로운 사례문제 중에는 최신판례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결국 양을 많이 늘여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1회~5회까지 기출된 판례의 법리를 제대로 또 정확하게 공부하고 최신 중요판례들 또한 판례의 법리를 사례문제화된 형태로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제4회 총평

예년과 문제구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문제 난이도는 최근 3회보다는 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론 및 주임법, 가담법, 동산채권담보법 등과 관련한 조문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녹녹치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복합사례형 문제가 줄어들었고 문제의 길이 및 숫자도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조문 및 법이론 문제가 많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출제경향이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에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복합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조문, 이론문제를 소홀히 하였다면 이제는 사법시험 또한 복합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고 무엇보다 단순판례암기 위주의 공부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조문, 법이론 문제는 계속해서 적지 않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제3회 총평

예년과 문제구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즉 민총 6문제, 채총 8문제, 채각 7문제, 물권법 10문제, 가족법 4문제로 예년과 동일하게 채권법이 다소 비중있게 출제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각 과목별로 균형잡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 단순 판례조합형의 문제보다 복합사례형의 문제와 맞는 지문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민법의 경우 조문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으나 올해에는 예상대로 개정민법의 조문을 묻는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4) 제2회 총평

작년과 문제구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즉 작년과 동일하게 채권법이 다소 비중있게 출제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각 과목별로 균형잡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 단순 판례조합형의 문제보다 복합사례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제1회 총평

출제범위는 민총 7문제, 채총 9문제, 채각 6문제, 물권법 10문제, 가촉법 3문제로 채권법이 다소 비중있게 출제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각 과목별로 균형잡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형식은 사례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 것이 특징이나 다만 복합적이고 난해한 사례형 문제보다는 사례형식의 문제를 통해 '판례의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단순 조문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선택형 문항분석

문제형식은 사례형이지만, 각 지문내용이 별개로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경우는 판례조합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제5회 선택형 문항분석(총 195지문 중 복합사례형 21개 지문으로 54%, 나머지는 판례지문)

	민총	채권법		물권법	친족상속법	합계
		채권총론	채권각론			
문항수	6	12	7	11	4	39
판례조합형	4	8	2	1	2	17
복합사례형	2	3	4	10	2	21
통합형	0	1	1	0	0	2

(2) 제4회 선택형 문항분석(총 146지문 중 조문, 학설, 법이론이 24개 지문으로 16.4%, 나머지는 판례지문)

	민총	채권법		물권법	친족상속법	합계
		채권총론	채권각론			
문항수	6	10	6	9	4	35
판례조합형	4	6	4	6	3	23
조문 이론형	1	1	0	1	1	4
복합사례형	1	3	2	2	0	8
통합형	1	1	1	0	1	4

(3) 제3회 선택형 문항분석

	민총	채권법		물권법	친족상속법	합계
		채권총론	채권각론			
문항수	6	8	7	10	4	35
판례조합형	2	0	1	2	2	7
복합사례형	2	6	6	7	1	22
통합형	2	0	0	1	1	2

(3) 제2회 선택형 문항분석

	민총	채권법		물권법	친족상속법	합계
		채권총론	채권각론			
문항수	6	9	6	10	4	35
판례조합형	5	4	5	0	0	14
복합사례형	1	5	1	10	4	21
통합형	1	0	1	1	0	3

(4) 제1회 선택형 문항분석

	민총	채권법		물권법	친족상속법	합계
		채권총론	채권각론			
문항수	7	9	6	10	3	35
판례조합형	4	4	4	5	2	19
복합사례형	3	5	2	5	1	16
통합형	0	0	2	0	1	3

3. 제1회~제5회 민법 지문 주제별 분석

(1) 민법총칙(31문제, 17%)

권리남용(사례), 미성년자(2번 기출 ; 개정조문, 판례), **법인**(4번 기출 ; 권리능력 없는 사단 판례문제 2번, 법인일반 사례문제,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관련 학설문제), 권리의 객체(판례), 부동산 이중매매(2번 기출 ; 사례), 제104조(판례), **통정허위표시**(3번 기출 ; 제108조 2항의 제3자 범위가 주로 출제), 의사표시의 흠결 전반(2번 기출 ; 판례), **대리**(4번 기출 ; 준사례형 판례지문이 주로 출제), 무권리자 처분행위와 타인권리매매(복합사례), 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추인(조문 및 판례), 조건 또는 기한(조문 및 판례), 무효(판례), 국토계획법(사례), 취소(조문 및 판례), **소멸시효**(4번 기출 ; 판례조합형 또는 복합사례형)

(2) 물건법(50문제, 27%)

물권일반(법이론 및 판례), **등기청구권**(3번 기출 ; 복합사례), 중복등기와 취득시효(사례), 등기의 추정력(판례), 점유권(조문), 선의취득(복합사례), **취득시효**(4번 기출 ; 복합사례 및 판례), 부합(조문 및 판례), 부합과 중물(복합사례), **공유**(5번 기출 ; 준사례형 판례지문이 주로 출제), 공동소유 전반(판례), **명의신탁**(4번 기출 ; 부실법 복합사례), **관법지 및 제366조의 법정지상권**(3번 기출 ; 복합사례), 전세권(2번 기출 ; 조문 및 판례), 전세권저당권(2번 기출 ; 사례), **유치권**(4번 기출 ; 경매, 도급계약 복합사례), **저당권**(8번 기출 ; 근저당 또는 공동저당권 관련 복합사례 다수 출제), **비전형담보**(7번기출 ; 가담법이나 동산 채권담보법 조문 또는 관례 판례,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복합사례)

(3) 채권총론(45문제, 25%)

채권의 목적(판례), 이행지체(2번 기출 ; 판례), 대상청구권(복합사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판례), 손해배상액의 예정(2번 기출, 판례), 도급(복합사례), 채권자지체 등(조문), 상가분양계약(판례), **채권자대위권**(3번 기출 ; 판례 및 복합사례), **채권자취소권**(5번 기출 ; 대부분 복합사례), 연대채무 및 부진정연대채무(2번 기출 ; 판례), **보증채무**(4번 기출 ; 판례 및 복합사례), **채권양도**(6번 기출 ; 대부분 복합사례), 채무인수(복합사례), 변제일반(2번 기출 ; 판례), 변제충당(2번 기출, 판례), **변제자대위**(4번 기출 ; 대부분 복합사례), 상계(2번 기출 ; 판례 및 복합사례)

(4) 채권각론(34문제, 19%)

동시이행의 항변권(판례), 대가위험부담(복합사례), **계약해제**(5번 기출, 대부분 복합사례), 제3자를 위한 계약(복합사례), 매매예약 완결권(판례), 매도인의 과실수취권(판례), 매매일반(복합사례), **임대차**(6번 기출, 판례 및 복합사례), 도급(사례), 예금계약(2번 기출 ; 판례), **부당이득일반**(6번 기출, 판례 및 복합사례), **불법행위책임**(6번 기출, 판례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관련 복합사례), 과실상계(판례)

(5) 친족상속법(19문제, 10.6%)

가사소송(조문 및 판례), **이혼**(5번 기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복합사례가 다수), 친양자입양(개정조문),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사례), 후견인(개정조문), 상속인 확정 및 상속분 계산(2번 기출), 한정승인(복합사례), 특별수익과 기여분(판례), 상속재산분할(사례), **상속회복청구권**(3번 기출 ; 판례), 사인증여와 유증(판례), 무효행위의 전환(판례)

[Ⅱ] 사례형 문제 분석 및 전략

1. 민법 사례형 총평

(1) 제5회 총평

사례형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정 질문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제가 예상되는 주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즉, ① 기존 기출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시되었던 점유취득시효, 대상청구권, 계약금 관련 쟁점과 ② 기존 기출에 출제되었으나 여전히 중요한 주제들 이를테면 소멸시효 중단과 포기, 채권양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이중매매 등이 그러합니다. 결국 사례형은 사법시험 2차 시험이 그러하듯이 구석진 쟁점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 사례형 시험의 특징 중 하나는 2014년, 2015년 최신판례도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다는 점과 상당수 사례문제들이 기존 사법시험 2차에서 출제된 유사쟁점들이라는 점입니다.

(2) 제4회 총평

사례형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정 질문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난이도만 놓고 보자면 제1회 변호사시험이 사례형의 경우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례형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2문의 1과 같이 채권법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례구조인 '특정 후 멸실 사안'과 같은 **순수 이론형의 사례문제**가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기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과의 차별화를 강조하였다면 이제는 변호사시험 본연에 충실하게 **실무형과 이론형의 절적인 조화**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시험의 방향으로 진일보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초적인 민사이론학습과 함께 실무적인 중요쟁점까지 모두 섭렵하고 공부해야 하는 적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제3회 총평

민사법의 경우 전체적으로 선택형, 기록형의 난이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녹녹치 않게 출제되었고, 사례형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정 질문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쟁점추출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에 '**순발력**'도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민법 선택형의 경우 복잡한 사례형 위주로 출제되었고, 기록형도 청구취지 구성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상담일지 및 자료에서 날짜와 금액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민사법리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상당히 수준높게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수준높은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일수록 특정 사례집, 특정 자료에 매몰되어 달달 암기만 하지 말고 1, 2학년 때 기본서를 중심으로, 중요판례와 중요법리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단한 실전연습(선택형·사례형·기록

형)이 병행되어야만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부단한 실전연습도 병행되어야 '응용력' 및 '순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출제경향이 사법연수원 형식이라고 해서 기초없이 연수원 교재를 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올해 1문의 4, 2문의 3과 같이 기존 사법시험에서 잘 소개되지 않았던 연수원 사례도 최근에는 대부분의 로스쿨 교재(로스쿨 맥 종합사례 38.번, 기본사례 51.번 동일)에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것은 못됩니다. 사례형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정 질문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친족, 상속법 쟁점이 전면적으로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 최근 사법시험 2차에서 출제되었던 쟁점들이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제2회 총평

제1문의 공통된 사실관계는 무권대리와 자동해제특약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과 민법상의 여러 쟁점을 묻고 있으나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를 물어보고 쟁점구조도 복잡하지 않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민사소송법적 쟁점의 분량이 줄어든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제1문의 1의 1. 가는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 나는 유권대리를 주장했을 때에 법원이 표현대리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변론주의, 다는 표현대리 주장과 무권대리 추인 주장의 인정여부, 라는 자동해제특약의 효력이 문제되고, 제1문의 1의 2. 가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57조와 제256조 1항 단서, 나의 경우 저당권의 불가분성이 문제되었다. 제1문의 2의 1의 경우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및 민법 제430조, 2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38조, 3의 경우 민법 제104조 또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및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문제되었습니다.

제2문의 1의 경우 비교적 최근 판례인 대판 2009.3.26, 2008다34828에 기초한 사례로 계약명의신탁과 관련한 부동산실명법 제4조 2항, 유치권 등이 핵심쟁점입니다(로스쿨 민법의 맥 사례 88번 동일). 제2문의 2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된 경우의 원상회복방법입니다(로스쿨 민법의 맥 사례 36번 유사). 제2문의 3은 중간생략등기에 관해 묻고 있는바, 중요한 점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각 당사자간의 계약은 엄연히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종래의 계약상의 항변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제1회 총평

1문의 경우 민법(50점)과 민사소송법(100점)의 종합문제, 2문의 경우 민법(100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문의 경우 민법과 민사소송법 모두 일반적인 기본서나 사례집에 소개되어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민사법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로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문의 민법문제의 경우 상당수 수험생들은 쟁점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했다는 후문입니다. 2문의 1의 경우 채권양도, 2문의 2의 경우 공유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문의 3의 경우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의 문제였습니다.

주제 자체는 전형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었으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세부쟁점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사법시험이 그러하듯이 민사법, 특히 민법의 경우 앞으로도 쉽지 않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의 경우 절차적인 쟁점이라 민법과 민사소송법, 상법과 민사소송법이 함께 엮이는 복합적인 사례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 쟁점은 올해 시험과 같이 어렵지 않게 출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2. 제1회~제5회 민사법 사례형 쟁점별 분석

(1) 민 법

1) 민법총칙

계약의 당사자 확정(제4회), 의사무능력과 제104조(제2회), 사기와 착오 취소가부(제4회),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무권대리행위의 추인(제2회), 소멸시효와 어음채권 행사로 인해 시효중단 여부,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에 미치는 영향,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등(제3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가압류 및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제5회)

2) 물권법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른 법률관계(제2회), 취득시효 완성자의 변제와 구상권(제4회),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구제수단(제5회),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1회), 구분 소유적 공유와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제3회), 계약명의신탁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제1회), 계약명의신탁과 유치권(제2회),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제5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채권자취소권(제4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제1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제4회)

3) 채권총론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에 의한 이행불능(제4회), 대상청구권(제5회),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없는 채권자대위권(제1회), 채권자대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제1회), 채권자취소송과 가액배상(제2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의 사해행위성(제4회),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에 관한 제451조 2항(제1회),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문제(제1회),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관한 제451조 1항(제1회), 채권양도와 전부명령 경합시 우열 판단과 가압류의 효력(제3회), 양도통지 이후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제4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승낙의 상대방(제5회),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한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여부 및 주채무의 이행기 연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제2회), 제3취득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제3회), 상계항변과 상계충당(제3회)

4) 채권각론

일부 계약금지급에 따른 효과(제5회), 종류채권의 특징과 대가위험부담주의(제537조, 제538조)(제4회), 잔금채무불이행에 따른 실권약정(제2회),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제5회),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배당요구 및 우선변제권(제3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전용물소권(제4회), 불법원인급여(제4회)

5) 친족상속법

낙태와 상속결격 및 상속포기(제3회),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것인지 여부(제3회)

(2) 민사소송법

1) 소송요건

관할합의(제1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적격(제1회), 저당권부 채권양도의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적격(제2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당사자적격(제3회), 중복소제기(제1회),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및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제4회), 당사자사망과 당사자 표시정정 및 소송수계(제5회)

2) 변 론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제2회), 장래이행판결(제2회),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제2회, 제3회),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제2회), 자백과 자백의 철회(제3회), 증명책임(제2회, 제3회)

3) 소송의 종료

일부청구와 기판력(1회), 기판력과 채권보전의 필요성(제4회)

4) 청구의 복수

예비적 반소(제1회)

5) 다수 당사자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제4회), 통상의 공동소송(제3회), 통상의 보조참가(제1회), 소송인수와 공동소송인 추가(제5회)

2. 민법, 민사소송법 사례형 출제예상

사법시험이 그러하듯이 민사법, 특히 민법의 경우 앞으로도 쉽지 않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의 경우 절차적인 쟁점이라 민법과 민사소송법, 상법과 민사소송법이 함께 엮이는 복합적인 사례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 쟁점은 올해 시험과 같이 어렵지 않게 출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상되는 주제로는 민법의 경우 올해와 같이 절차법과 연결될 수 있는 주제들, 실무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이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계약 해제, 공탁 또는 상계,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 및 철거, 소멸시효, 각종 등기이전 및 등기말소청구, 임대차, 채권양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의신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친족, 상속법과 관련한 쟁점은 항상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사법시험 2차 기출을 중심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실체법과 연결해서 출제될 만한 주제들과 제1심 소송절차의 중요쟁점, 기판력 등이 여전히 유력한 쟁점이라고 판단됩니다.

3. 공부방법론(조문 ⇒ 판례 ⇒ 사례풀이의 유기적 공부)

논술형(사례형)을 포함한 기록형 시험의 관건은 ‘제한된’ 시간안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으로 유의미한 ‘쟁점’을 추출하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수단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능력은 민법 기본서에 대한 회독수가 늘어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평면적인 민법지식이 풍부하다고 해결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민법은 민총(계약의 성립) ⇒ 채권(계약의 이행) ⇒ 물권(물권변동)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정치한 논리구조이므로 민법을 포함한 민사법의 전반적인 체계나 각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에 대한 ‘깊이 있고’, ‘자발적인’ 사고능력 없이는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원 강의나 학교수업을 통해 민사법에 대한 체계잡기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민사법의 기초개념, 기본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작업 없이 민사법을 수험적으로만 그리고 기술적으로만 공부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결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향후 법률실무가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초작업은 로스쿨 1학년, 2학년때까지 마무리되어야 하겠고, 3학년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조문, 리딩 판례, 사례풀이의 유기적 학습을 통해 이를 심화시켜나가는 연습 및 반복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Ⅲ】 기록형 문제 분석 및 전략

1. 전반적인 소장 작성 요령

기록은 가공되지 않은 법적 분쟁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법률교과서나 판례로 공부를 하다 시험장에서 막상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기록을 마주 치면 (실무에서의 기록은 비법률적인 사실관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간은 이 모든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구성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소비하여야 될 것입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이러한 가공되지 않은 사실관계 중 법적인 의미가 있는 사실관계를 추출하고 이를 법적인 논리로 가공하여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청구 취지만 보면 그러한 법적인 논리가 거의 대부분 드러나게 되어있고, 판례 및 다수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가공하고 소장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얼마되지 않는 시험시간 중 일부를 할애해서 해야 하는 꼭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는 시험에 앞서 수많은 기록을 풀어봄으로서 숙련 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있겠지만,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사실관계를 나누고 쪼개어 보는 것입니다. 흔히들 법률관계를 ‘분석’해보라고 합니다. 분석(分析)에서의 첫음절인 ‘분’은 ‘나눌 분(分)’을 사용하는데, 이는 분석이라는 과정이 나누고 쪼개는 과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록을 읽고 난 후 각각의 요소별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피고별로, 부동산별로 등 등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든 상관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기록이나 사례풀이를 연습하면 필요한 법률요건을 빠짐없이 검토하게 되고 답안을 전개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며 장기적으로는 법적 사고력이 한결 깊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을 속독 및 정독하면서 메모를 해야 하지만, 소장 작성에 관하여는 메모법에 관한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다만 메모지에 기록을 읽으면서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나 청구 권원을 기록해 놓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고, 특히,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과 같은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연관되는 법률관계의 경우 그 요건을 따져보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2. 공부방법론

(1) 의뢰인의 말을 의심하면서 볼 것

이것은 의뢰인이 전달하는 사실관계를 의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장 작성 요령]에도 나와 있듯 의뢰인이 이야기한 사실관계는 진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 논리를 재구성하는 것은 법률가인 변호사의 몫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법적인 구제수단에 대하여 그럴 듯한 말을 한다고 하여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안됩니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걸리지는 않는지,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항상 염두해 두면서 의뢰인의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쓸데없는 문장은 없습니다.

기록이 두껍다고 해서 대충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의 문장을 바탕으로 요건사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론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나온 한 문장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고, 전혀 생각치도 못한 쟁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비슷한 사실관계가 나온다면 둘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체법적 지식의 입체적 이해

단순히 법리를 안다고 해서 기록형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아는 민사법 지식이 기록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현출되는지,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일반론이 사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변제, 상계 등은 판례의 추상적인 법리와 기록간의 괴리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중요 쟁점들이고 기록형에서 출제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즉, 이러한 쟁점들은 판례의 법리를 안다고 하여서 구체적인 사건해결이 쉽게 이루어지는 영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기록을 풀어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4) 실전연습과 메모법 개발

변사에서 민사법 기록형 문제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령은 형식적인 부분에서 일단 많은 연습이 되어 실제 시험장에서는 실체법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속도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기록에 산개해있는 각종 요건사실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적절히 재구성할 수 있는 메모법을 나름대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정확한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싶을수록 그 메모의 중요성은 더해갈 것입니다.